

환영사

2025. 3. 27.(목)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

이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발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원장 이복현

I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원장 이복현입니다.

2025년 'FSS SPEAKS'에 참석해 주신
외국계 금융회사 임직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이번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오신
콜린 크룩스(Colin James Crooks) 영국대사님,
미즈시마 코이치(Mizushima Koichi) 일본대사님,
에릭 테오(Eric Teo Boon Hee) 싱가포르대사님,
다그마 슈미트 타르탈리(Dagmar Schmidt Tartagli) 스위스대사님,
페이터 반 더 플리트(Peter van der Vliet) 네덜란드대사님,
에밀리아 가토(Emilia Gatto) 이탈리아대사님,
왕치림(Wang Zhi Lin) 중국대사관 경제공사님,

그리고

필립 반 후프(Philippe Van Hoof) 유럽 상공회의소 회장님,
션 블레이클리(Sean Blakeley) 영국 상공회의소 회장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발표를 위해 홍콩에서 화상으로 참석해주신
존 주(John Zhu) 스위스리 수석 이코노미스트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Ⅱ 금융안정으로 여는 동반성장의 길

현재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은
복합적인 불확실성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대내적으로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 지속되어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졌으며,

미국 행정부의 정책방향 등 대외변수가
국내 경기의 하방위험과
시장변동성 확대 우려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올해 FSS SPEAKS는
「금융안정으로 여는 동반성장의 길」이라는
부제를 설정하였으며,

금융감독원은 굳건한 금융시스템을 바탕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나아가 금융산업이 국민과 동반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먼저,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금융
안정을 확고히 지켜나가겠습니다.

일관성 있고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
객관적인 부동산PF 사업성 평가를 통해
금융시장 자금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하겠습니다.

자산운용사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 IPO 제도개선,
대체거래소 출범에 따른 복수시장 체제 등이
우리 자본시장에 안착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다음 주부터 1년여만에 공매도가 재개되는 만큼
전산시스템 구축, 금융회사 업무관행 개선 등을 통해
공매도가 원활히 재개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균형감 있는 디지털 규율체계를 마련하여
금융권의 디지털 혁신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금융권에서 AI를 체계적으로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권 통합 AI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동 AI 플랫폼」 구축도 지원하겠습니다.

Ⅲ 맺 음 말

내외 귀빈 여러분!

그동안 한국 금융산업과 금융당국은
수많은 위기를 기회 삼아 성장해 왔고
최근에도 국내외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국 금융시장이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면서
외국계 금융회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소중한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더욱 역동적인 경제,
안정적인 금융시장을 만들기 위해
외국계 금융회사와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